

인프라 개발 및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한 한국 - 폴란드 협력관계 강화

- 폴란드 순방 계기 국토부-폴란드 정부 간 MOU 2건 체결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7월 13일(목)에 폴란드를 국빈급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(Andrzej Duda) 폴란드 대통령 간의 정상 회담 후, 두 정상의 임석 하에 폴란드 인프라부 및 우크라이나 개발협력 전권대표와 교통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2건의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.
- 최근 폴란드와는 방산, 원자력, 플랜트 등 다양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오고 있으며, 우리 기업 또한 폴란드를 중·동유럽 시장 진출과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의 전초기지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.
- 구체적인 업무협약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.
 - 폴란드 인프라부와는 ‘△폴란드 및 중·동유럽지역 교통 인프라 개발, △항공을 포함한 교통 분야의 양국간 협력 강화, △중·동유럽의 동-서 및 남-북 교통축 개발’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였다.
 - 폴란드 우크라이나 개발협력 전권대표와는 ‘△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발 프로젝트 협력, △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국토, 도시, 인프라 계획 협력, △양국의 공공·민간기업 간 교류 및 협력 확대’를 추진할 계획이다.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이번 MOU 체결을 통해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이 더 많이 중·동유럽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로 삼겠다”면서, “특히,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최인접국이자 재건 사업 진출의 거점으로, 협력방안을 계속 구체화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건설정책국	책임자	과 장	최신형 (044-201-3516)
	해외건설정책과	담당자	서기관	김영지 (044-201-3517)

① 한-폴란드 교통인프라 개발 협력 MOU

- (체결주체) (한) 국토교통부 장관 / (폴) 인프라부 장관
- (의의) 폴란드 및 중·동부 유럽지역의 교통 인프라 개발 전반에 대한 양국의 협업 강화 및 공공·민간 기업들의 교류·협력활동 장려·촉진
- (주요 내용) △폴란드 및 중·동유럽지역 교통 인프라 개발,
△항공을 포함한 교통 분야의 양국간 협력 강화,
△중·동유럽의 동-서 및 남-북 교통축 개발
 - 정부·기업 대표단 및 전문가 그룹의 상호 방문
 - 고위급 및 실무급 협의체 운영
 - 워크숍 및 훈련 프로그램의 공동 개최
 - 협력분야에서의 공동연구, 사업계획 수립, 개발 및 시행 등
 - MOU 후속절차와 활동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회의 개최

② 한-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

- (체결주체) (한) 국토교통부 장관 / (폴) 우크라이나 개발협력 전권대표
- (의의) 우크라이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양국의 협업 강화 및 공공·민간 기업들의 교류·협력활동 장려·촉진
- (주요 내용) △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발 프로젝트 협력,
△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국토, 도시, 인프라 계획 협력,
△양국의 공공·민간기업 간 교류 및 협력 확대
 - 정부·기업 대표단 및 전문가 그룹의 상호 방문
 - 고위급 및 실무급 협의체 운영
 - 워크숍 및 훈련 프로그램의 공동 개최
 - 협력분야에서의 공동연구, 사업계획 수립, 개발 및 시행 등
 - MOU 후속절차와 활동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회의 개최